

웃고~ 울고~ 웃음과 감동을 주는
〈골 때리는 그녀들〉

글. 조형곤 SBS A&T 방송기술팀 음향감독



“축구! 우리도 할 수 있어!”

진정성 200%! 축구에 진심인 그녀들과
대한민국 레전드 태극전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소모임 탄생!

Goal 때리게 재밌고! Goal 때리게 쫄깃한!
여자 축구의 르네상스가 펼쳐진다

골 때리는 그녀들

방송기간

2021년 6월 16일(수) 밤 9시 ~

방송시간

매주 수요일 밤 9시

MC

이영표, 배성재



<골 때리는 그녀들>의 시작

2021년 2월 설 특집 파일럿으로 방송되었던 골 때리는 그녀들은 2021년 6월, 정규방송으로 편성되며 좌충우돌~ 우당탕탕~ <골 때리는 그녀들>이 시작됐다.

대한민국 레전드 태극전사들이 감독을 맞는다고 하여 약간의 설렘과 궁금함에 한 번씩 보게 된 프로그램. 축구공 하나에 우르르 몰려들어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웃음을 자아내며 어떤 선수든 골을 넣으면 내가 골을 넣은 것처럼 대리만족하며 시청하게 된 것 같다.



2021 정규리그 개막 감독 사진



파일럿 편, 국대패밀리 vs 불나비



<골 때리는 그녀들>의 진심을 알게 되다

그저 웃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님이 했을 무렵, 공만 쫓던 그녀들이 패스를 하기 시작했고, 점점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고 공이 날아오면 피하지 않고 들이대는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고, 감독들도 진짜 프로축구 감독들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FC구척장신 이현이



최진철 감독

각기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자 연예인들이 다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죽기 살기로 뛰는 모습이 각자도생이 아닌, 어느새 한 팀으로 나보다 팀원들을 챙기고 서로를 응원하며 팀워크를 맞추고, 각자의 스케줄이 있음에도 틈틈이 연습하여 체력과 기술을 배우고 전술을 익히는 장면들을 보며 진짜 축구에 진심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골 때리는 그녀들>의 진정성에 매료되어 매주 수요일 저녁 9시를 기다리게 되었다.



FC발라드림 경서



이영표 감독



<골 때리는 그녀들> 여자 축구 활성화를 시키다

회를 거듭할수록 골 때리는 그녀들의 진심이 전해지며 전국적으로 여자 축구, 풋살 동호회의 창단이 많아지고 눈으로만 보던 축구를 직접 필드에서 땀 흘리며 뛰는 '골 때리는 그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생활체육 현장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용품시장에도 활력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지역마다 여자 풋살팀이 창단되어 10대부터 많게는 50대까지도 풋살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저 단순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쪽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K리그 컵 자료사진



골때녀 vs 팀K리그



시즌마다 새로운 변화로 재미를 더하다

<골 때리는 그녀들>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시청자와의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하고 있다. 웃음과 감동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향상된 실력, 감독들의 새로운 전술까지 더해져 골 때리는 그녀들의 골수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감독대전



팝업스토어



한일전 경기



GIFA 총회

매회 성장하는 골 때리는 그녀들에게

경기에 패해서 속상할 때도 있고, 아무리 연습해도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 답답할 때도 있고, 나 하나 때문에 팀에 폐를 끼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될 때도 있고,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겠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필드 위에서 모든 힘을 쏟아 최선을 다하는 그대들을 향한 응원과 격려의 목소리를 기억해 주길. 그대들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통해 새로운 시작에 용기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어디로 될지 모르는 축구공처럼 골 때리는 그녀들 한명 한명의 통통 튀는 매력으로 SBS 장수 프로그램의 선두 주자가 되길 바랍니다.

‘골 때리는 그녀들’ 파이팅!!!



‘골 때리는 그녀들’ 팀별 로고